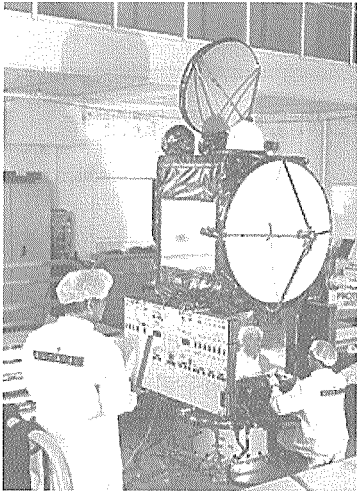




해외 업계 소식

고도 측정 인공위성 美·佛 공동 개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프랑스 우주기구(FSA), 미 항공 우주국(NASA)이 최근 공동 개발한 최신형 고도 측정 인공위성 제이슨 1호. 과학자들은 이 인

공위성을 통해 확보한 해면의 각종 지형과 해류의 흐름 등을 측량해 대양이 기상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獨인피니온-日도시바, 메모리 부문 합병 가시화

독일 인피니온과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부문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피니온의 CEO인 울리히 슈마허는 최근 독일 동부 드레스덴 공장 가동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시바와 메모리 칩 부문 합작사 설립을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슈마허 CEO에 따르면 양사의 실무 간부들은 현재 인피니온이 주도하는 컴퓨터 메모리 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했다.

각각 세계 4위와 6위 메모리 업체인 인피니온과 도시바가 합작할 경우 세계 3위의 메모리 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슈마허 CEO는 “이번 합의 사항은 각각 양사의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플래시 메모리 부문의 합작사 설립에 대한 부수 협상도 아직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양사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인피니온이 합작사의 지분 80%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아직 기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플래시메모리 합작사의 경우 도시바가 80%의 지분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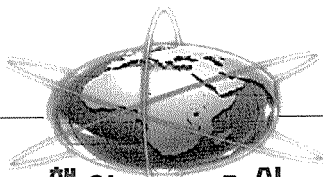
NEC 2.5G폰 중국과 유럽에

일본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NEC가 연내 유럽과 중국에서 고속데이터통신 서비스에 대응하는 제2.5세대(G) 휴대폰의 판매에 착수한다

이 회사는 대만 제조업체로부터 OEM 방식으로 유럽과 중국용을 모두 조달할 예정이며, 내년 한해 두 시장 합계 약 3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동안 해외 사업을 축소조정해 온 NEC는 이로써 2.5G 시장 확대를 겨냥해 다시 공세로 돌아서게 된다. 이 회사는 유럽 시장의 성장 둔화를 이유로 2000년말 영국 공장을 매각하는 등 해외 사업 비중을 줄여왔다.

2001년에 유럽과 중국에서 잇따라 시작한 2.5G 서비스는 통신속도가 현행 주력인 2G 서비스에 비해 10배 정도 빠르다. NTT도코모가 10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3G 서비스에 비해선 통신속도가 4분의 1 정도 더디지만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통신인프라를 사용



해외업계소식

할 수 있고 패킷 방식의 요금을 채택하기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도 적다.

이에 따라 2.5G에서는 데이터통신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 NEC 진출을 기점으로 대응 기종의 판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NEC가 중국과 유럽에 투입하는 기종은 폴컬러 액정을 사용하는 대화면의 폴더 타입이다. 두 시장에 이같은 타입의 제품을 투입하는 것은 NEC가 처음이다.

특히 이 제품은 대만 전자기기 수탁생산 업체(EMS)의 중국 쑤저우(蘇州)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제 휴대폰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수입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럽에서는 연내 이탈리아 통신사업자용으로 출하를 개시할 예정이며, 네덜란드·영국·독일·프랑스 등의 통신사업자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중국용으로는 연내 10만대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소니 중국에 AV소프트웨어 거점

일본 소니가 2002년 초 중국 상하이에 AV기용 소프트웨어 연구조직을 설립한다

소니의 중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소니중국의 산하 기구로 신설되는 이 연구 조직은 디지털 TV·디지털캠코더 등에 장착하는 중국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룹 전체에서 사용하는 기반 소프트웨어 연구의 일부를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소니의 이번 결정은 차세대 가전의 관건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수한 중국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대시장 중국에서 상품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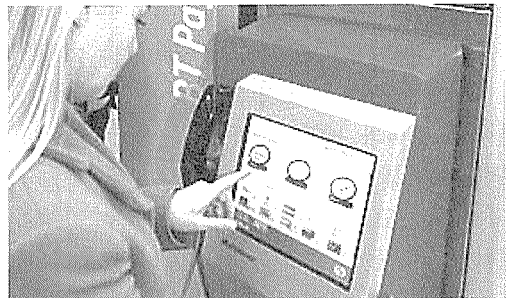
이미 소니의 라이벌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지난해 1월 베이징에 동종 연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양사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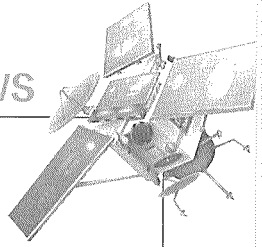
英 공중전화 인터넷폰 '변신'

영국 통신산업을 대표하는 브리티시텔레콤과 마르코니가 손잡고 현재 BT가 영국 전역에 운영하고 있는 3만여대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음성전화는 물론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양사는 2002년 4월부터 5년 간에 걸쳐 영국 전역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마르코니가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하고 BT는 통신 네트워크 관리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BT는 우선 사업 첫 해인 2002년에 약 3000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철도역과 공항 등 시설보호가 잘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후 점차 대로변 공중전화 박스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대역 통신이 中대륙 달군다

중국에서도 고속·대용량의 브로드밴드(광대역) 통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는 약 1억6000만의 전화회선이 있고, 인터넷 이용자는 3000만명을 넘어선다. 이들 네티즌 가운데 80% 이상이 다이얼업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지만 최근 1년 사이 ADSL 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주요 통신 사업자와 프로바이더들은 전국에서 ADSL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2000년 말 시점에서 이용자가 10만명에 이르고, 2001년에는 광둥(廣東)성에서만 이용자가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체로는 2002년 말 인터넷 이용자의 30%에 상당하는 1000만명 이상이 ADSL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시장 전망에 따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는 인프라 정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오디오 지문인식 기술 첫선

앞으로는 좋아하는 노래의 제목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음성을 인식해 곡명을 확인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술개발 주역은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대형

전자업체 필립스로 이 업체는 2002년 말부터 이른바 '오디오 지문인식(Audio Fingerprinting)'이라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오디오 지문인식 기술은 휴대폰만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노래 제목뿐 아니라 가수 이름, 노래가 실린 앨범에 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최첨단 기술이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스피커에 휴대폰을 대고 그 노래에 담긴 '디지털 지문'을 몇 초에 걸쳐 저장한 뒤 이를 지금까지 발표된 지구상의 모든 음악이 디지털 코드 형태로 수록돼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면 이 서버에서 노래의 전모가 순식간에 확인되는 방식이다.

노래확인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업체에 곡명 확인을 의뢰한 뒤 휴대폰 화면으로 곡명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초도 안된다. 이는 필립스측의 설명이다.

이 기술이 탁월한 또 한가지 이유는 주변이 시끄럽거나 음질 자체가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우선 이동전화사업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기술 사용권을 파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휴대폰 수요 '대체'가 '신규' 앞설듯

세계 휴대폰 시장은 2002년 20% 이상 확대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 2008년 5억4000만대로 피크를 이룰 전망이다. 또 휴대폰 수요는 지난해까지는 신규수요와 대체수요가 균형을 이뤘지만 2002년 이후에는 대체가 앞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IT 관련 시장조사 서비스인 닷케이마켓엑세



해외업계소식

스(MA)는 최근 '세계 휴대폰 장기수요 예측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휴대폰 수요는 올해 신규와 대체 수요가 각 1억8250만대와 1억8474만대로 거의 균형을 나타내지만 2002년 이후에는 대체는 확대하는 반면 신규는 계속 줄 것으로 예상됐다.

2005년 신규수요는 1억5387만대로 축소되는데 반해 대체수요는 3억7182만대를 기록해 신규와 대체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와 대체 합계 수요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02년에는 23% 정도의 대폭적인 신장이 기대됐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성장률 둔화가 지속돼 2008년 5억4651만대를 피크로 이후에는 제자리걸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2년 20%대의 고성장은 2001년 수요격감에 따른 반동과 함께 99년과 2000년 서유럽 등을 중심으로 급증한 신규가입자의 대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으로 신규수요는 2000년까지 서유럽이 주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국이 중심이 되고 2004~2005년에는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이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대체수요는 앞으로 서유럽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쯤에는 중국이 새롭게 대체수요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논과 도쿄일렉트론 제휴

일본 캐논과 도쿄일렉트론이 2004년 이후 보급이 예상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의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양사는 캐논 공장에서 개발중인 차세대 노광장치와 도쿄일렉트론의 주변 장치를 결합, 차세대 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캐논은 현재 파장이 짧은 불소(F2) 레이저를 사용하는 차세대 노광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공동 연구에 도쿄일렉트론은 노광공정의 전후에 사용하는 레지스터(광광수지) 도포·현상장치를 제공한다.

F2 노광장치는 회로선폭을 현재의 절반인 70nm로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후보 중 하나다. 캐논은 도포·현상장치에 강한 도쿄일렉트론과 손잡고 이 차세대 장치의 실용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US언와이어드, IWO 홀딩스 인수

미국 이통 서비스 업체 스프린트PCS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선호출 등 부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US언와이어드가 4억5900만달러(주식교환 방식)에 경쟁업체 IWO홀딩스를 인수했다.

US언와이어드가 2002년 2분기까지 두 회사의 통합작업을 끝내면 미국 13개주에서 총 1600만명의 스프린트PCS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 회사는 US언와이어드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로버트 파이퍼가 통합회사 CEO를, IWO홀딩스 CEO인 스티브 닐슨도 통합회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투톱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